

오이디푸스(Oedipous)에 관한 세 편의 단면()

저자 (Authors)	김성범
출처 (Source)	씨네포럼 (2) , 1999.12, 41-59(19 pages) Cine forum (2) , 1999.12, 41-59(1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Dongguk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Imag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57141
APA Style	김성범 (1999). 오이디푸스(Oedipous)에 관한 세 편의 단면(). 씨네포럼(2), 41-5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오이디푸스(Oedipous)에 관한 세 편의 단면(斷面)

김성범(석사 과정 2학기)

I. 들어가며

II. 본론

1.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오이디푸스
2.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오이디푸스
3.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오이디푸스

III. 나오며

I. 들어가며

우리는 이미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소포클레스가 쓴 희곡으로서 근친 상간과 친부 살해를 다룬 그리스 비극 중 하나이다.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비극은 「오이디푸스 왕」편인데, 내용은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자신의 두 손으로 두 눈을 빼내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비극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편으로, 광야에서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가 겪는 고행과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두 아들(폴뤼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에게 저주를 내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비극은 「안티고네」편으로써, 안티고네와 테베의 왕 크레온(오이디푸스의 처남으로 오이디푸스를 쫓아낸 뒤 왕위를 차지한다)의 이야기이다.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신탁(神託)에 의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운명(아버지를 죽이

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결국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종속되고 이 운명은 오이디푸스를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괴롭힌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완벽한 신화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다. 왜 받아들이기에 힘이 든 것일까?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성도덕과 사회규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터부’¹⁾라는 포르노 영화가 생각나서일까? 아니면 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신화적 내용 때문이었을까? 혹은 사드의 소설 내용과 비슷해서일까? 의문점은 많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먼 옛날 소포클레스가 이런 소재로 비극을 썼을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해 본다면,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비슷한 일이 어떤 풍습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근친간의 결혼 풍습이나 확대된 씨족 사회의 결혼 풍습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형제간의 싸움이나 살인은 빈번하게 고대 역사에서나 고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왕좌를 차지하기 전, 자신의 아버지(크로노스)를 죽인 친부 살해나 신들 사이의 근친 상간은 이미 그리스 신화 내에서 존재했던 내용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신화 속에서 신화소의 역할을 해온 친부 살해나 근친 상간은, 19세기 정신분석학이 탄생하면서 줄곧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발견한 프로이트를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필자는 프로이트에 관한 적은 지식으로 그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더불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오이디푸스 신화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프로이트의 의도대로 성적 상징화되어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옹의 분석대로 신화적 내용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원형(archetype)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1)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 영화 시리즈 제목.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이트 말대로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억눌림과 근친 상간의 욕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개인적으로 신경증이나 정신병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바, 프로이트나 융이 말한 것과 같은 분석 대상으로서의 경험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꿈을 통한 내 자신의 경험은 프로이트를 알게 된 후에 생겨난 꿈의 해석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친부 살해와 근친 상간의 욕망을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의 해법과는 다른 해석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무의식이 아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약한 연결고리 때문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구조에 대한 다른 혹은 넓은 인식론적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오이디푸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언어의 표상은 기억의 잔재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표상은 한때 지각의 내용이었다. 모든 기억의 잔재물이 그렇듯이 언어의 표상은 다시 의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 지각이었던 것만이 의식화될 수 있으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의식화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외부 지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²⁾ 그러나 기억(의식)이 재생되었을 때 리비도 집중³⁾은 기억의 조직 속에 남아 있는 반면, 지각과 구별할 수 없

2) 언어적 잔재물은 주로 청각적 지각에서 유래한다. 독서를 통해 시각적 지각을 통해서 언어 표상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언어란 결국 청각적으로 전달된 말의 기억 잔재물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p.105.

3) 프로이트에 의하면 ‘모든 기억의 재생이 이루어질 때는 필히 리비도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리비도는 이드에서 방사(放射)되고, 이런 이드를 토대로 그 위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재생이 이루어질 때 전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해 자아로 표상해주는 것이 바로 이드의 역할이다.

는 환상은 그 리비도 집중이 단순히 기억의 흔적에서 <지각>적 요소로 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덮어 버릴 때 발생할 수 있다.⁴⁾ 위와 같은 전의식⁵⁾적 의식은 의식의 원래 자리에 그대로 담을 수 있지만 무의식은 의식으로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

전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내부적 지각과 외부적 지각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적 지각은 의식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내부적 지각은 쾌-불쾌의 감정처럼 어떤 변화를 향해 방출할 때만 느낄 수 있다. 무의식의 관념은 이처럼 어떤 감정과 감각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져야 의식속으로 들어오는데 반해 (전)의식은 감정의 문제에 관한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의 표상을 다시 설명하면, 언어 표상의 역할은 외부적 지각으로서 내부의 사고 과정이 지각된다.⁶⁾ 이것은 '리비도 과잉 집중'이 발생하면 사고는 마치 외부에서 온 것처럼 지각되고, 결과적으로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는 의식적임과 동시에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자아는 이드의 표면에 자리를 잡는다. 이드는 무의식 상태이다. 무의식은 억압된 것과 합병되어 있다. 이드는 이런 억압된 것을 자아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과적으로 자아는 <지각-의식>의 매개를 통해 외부 세계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수정된 부분의 이드이다. 자아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자아와 그 경향과 연결시키려 하고, 이드 속에서 무제한적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쾌락을 현실 원칙으로 대치시키려고 노력한다.⁷⁾ 예를 들어, 우울증은 상실했던 대상이 다시 자아 속에 자리잡는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대상 리비도 집중'이 동일시에 의해서 대치되는 병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초기 원시적 구순기(口脣期)에는 '대상 리비도 집중'과 동일시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울

4) 프로이트, 같은 책, p.105.

5) 잠재되어 있으나 의식화할 수 있는 것.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의식화할 수 없거나 순조롭게 의식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 같은 책, p.97.

6) 언어는 이미-항상 존재하며, 의식의 바깥에 존재한다.

7) 프로이트, 같은 책, p.111.

중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상 리비도 집중’은 구순기의 메커니즘을 향한 일종의 퇴행(내투사)을 통하여 자아는 더 쉽게 대상을 포기한다.

관점을 바꿔, 만약 성적 대상 선택이 자아의 변화로 변형되는 것은 이드가 외부의 성적 대상을 포기하고 자아 내부에 외부의 성적 대상의 동일화를 획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대상 리비도를 자기애(自己愛)적 리비도로 변형시키는 일은 분명히 성적 목적의 포기, 탈성화(脫性化), 일종의 승화를 암시한다. 그러나 자아의 대상 동일시의 발생 횟수가 빈번하고 지나치게 과도하면 병적 결과, 즉 자아의 분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프로이트는 분명히 말해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남자아이의 경우는 매우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대한 ‘대상 리비도 집중’을 개발시킨다. 그것은 원래 어머니의 젖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상 선택의 원형이 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이 더 강렬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욕망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바로 여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한다. 아버지와 동일시하려는 아이는 적대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그것은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욕망으로 바뀐다.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대상 리비도 집중’을 포기하고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머니와의 동일시나 아버지와의 동일시 강화로 채워진다. 프로이트는 이 후자의 결과가 더 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것은 남자아이의 성격에 남성성을 강화시켜 준다. 여자아이도 어머니와의 동일시의 강화로 결말이 나고 여성적 성격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경우 포기한 대상, 즉 아버지의 동일시가 아닌 어머니를 동일시켰다. 이 경우, 프로이트는 “여자아이도 아버지를 포기한 후에 남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양성 모두에게서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냐 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상황이 아버지와 동일시로 끝났느냐 혹은 어머니와의 동일시로 끝났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한다.⁸⁾또한 어린이의 이러

8) 프로이트, 같은 책, p.121.

한 양성소질 때문에,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대상 선택이 바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좀더 완전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말한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가적 태도는 전적으로 양성소질에 귀착시켜야 하고, 경쟁 심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일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쪽 끝에는 정상적인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남고 다른쪽 끝에는 거꾸로 된 부정적인 것이 남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이것의 중간 단계는 양쪽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두 구성 요소를 갖춘 완전한 형태를 드러내 보인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와 더불어 그것을 구성하고 있던 네 개의 성향이 아버지-동일시와 어머니-동일시를 만들어 내어 집단화된다. 아버지-동일시는 긍정적 콤플렉스에 속하는 어머니에 대한 대상 관계를 보존하는 반면 거꾸로 된 콤플렉스에 속하는 아버지에 대한 대상 관계를 대치시켜 버릴 것이다. 어느 사람에게서나 이 둘의 동일시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그에게서 두 개의 성적 성향 중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는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다.⁹⁾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억압하는 역할은 초자아가 맡는다. 어린아이는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큰 장애물인 아버지를 자신의 자아 속에 동일한 장애물로 설치함으로써 억압의 수행을 위한 요새화 작업을 수행한다. 초자아는 아버지의 성격을 띤다.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후계자이다. 따라서 초자아는 이드의 가장 강력한 충동과 가장 중요한 리비도적 변화 양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자아를 세움으로써 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을 이드 세계에 대한 종속 관계 속에 위치시킨다. 자아가 근본적으로 외부 세계나 현실의 대변체인 반면, 초자아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내부 세계나 이드의 대변체로서 존재한다.¹⁰⁾ 어린아이가 자람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은 선생님이나 다른 권위적 인물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들의 명령과 금제(禁制)는 초자아에 막강한 상태로 남아 있고 양심의 형태로 도덕적 검열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 감정

9) 프로이트, 같은 책, p.123.

10) 프로이트, 같은 책, p.126.

(규범, 윤리 등)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초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타인과의 동일시에 의존하고 있다. 종교, 도덕, 사회적 감정은 원래 동일한 것이며, 종교와 도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 자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2.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죄인이다. 지라르는 “이 비극 신화의 결말은 죄인이 신탁에 의하여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편에 대한 한쪽 편의 승리를 위장한 것, 즉 한 논쟁적 해석의 반대 해석에 대한 승리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말을 쉽게 바꾸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공동체가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시국가의 영역에서 시역(弑逆)죄인이라는 것과 가족의 영역에서 친부모 살해범이라는 사실은 같다. 친부살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폭력의 상호성이 자리를 잡는 것, 곧 부자 관계가 대립적인 <형제 관계>로 환원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 카인과 아벨의 경쟁 관계나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얘기를 들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라이오스 왕은 항상 오이디푸스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오이디푸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¹¹⁾. 폭력의 상호성이 부자 관계조차 없애버리게 되면 가장 엄격한 금기의 대상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경쟁 관계로 변화시키면서 폭력의 상호성은 완벽하게 이 관계를 평행 관계로 만든다. 근친상간도 극단적인 폭력이다. 이 폭력의 결과는 극단적인 차이의 파괴인데 가족 속에서 중대한 차이, 즉 어머니와 차이의 파괴가 그것이다.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은 희생 위기 속에서만 그리고 그것과의 관련하여서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은 한 사회의 질서를 지탱시켜주는 문

11) 오이디푸스를 낳기 전부터 신탁의 명을 받고 피로워하다가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마자 시중에게 오이디푸스를 죽이라면서 버린다. 또한 세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오이디푸스를 만나, 그에게 맞아 죽던 날에도 라이오스 왕은 오이디푸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다.

화적 금기의 역할을 하기때문다. 그리고 이러한 금기의 위반은 신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성화를 부여받은 신성한 인간(왕)에게 적합하며, 질서와 평화유지를 위해 희생양은 희생 제의로 위장한 폭력적 제의를 통하여 살해되고 희생양은 더욱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대부분 이런 희생양은 성스러움을 부여한 다른 대체물(소, 말, 양 등)¹²⁾로 대체되는데, 오이디푸스는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길 선택한다.

신화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상호적 폭력을 단 한 개인의 끔찍한 범죄로 대체시킨다. 오이디푸스는 현대적 의미의 죄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도시의 불행에 대해 책임은 있다. 그는 진짜 인간 희생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의 정착은 만장일치의 현상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모든 대칭적인 수많은 상반된 비난들이 만나는 바로 그 곳, 단 하나의 비난만이 득세하고 주위의 모든 것은 침묵하게 된다.¹³⁾ 이리하여 각 개인끼리의 적대관계가 일인에 대항하는 만인의 단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폭력의 만장일치 속에서 도시 전체는 단 한번의 폭발로 안정을 되찾는다. 희생위기 속에서 적(適)수들은 엄청난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단절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차이들은 조금씩 소멸된다. 그래서 어디서나 동일한 욕망, 동일한 증오, 동일한 전략, 언제나 완벽한 일치상태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동일한 환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 문화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폭력의 쌍둥이가 된다. 이것을 짝패(double)라고 부른다.¹⁴⁾ 폭력적 만장일치는 짝패

12) 이런 대체물은 사후 복수가 없고,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와 연속되는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순수한 희생양이다.

13) 오이디푸스는 티레시아스와 크레온에게 비난(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을 돌리는데 실패하지만, 크레온과 티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이 비난을 돌리는데 성공한다. 이 수사는 결국 희생양을 찾는 추적이다.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p.121.

14) 밖으로부터의 관점, 즉 상호성과 동질성을 보며 차이를 부정하는 이 관점만이, 희생물에 대항하여 그리고 희생물의 주위에 다시 만들어지는 만장일치의 비결인 폭력적 해결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차이가 전혀 없을 때, 결국 동질성이 완벽할 때 적대자들은 <짝패>가 되었다. 희생대체를 보장해 주는 것은 그

의 일반화로서 만들어진다. 즉 폭력이 인간을 정말로 획일화시키고 모두가 자기 적수의 짝패나 쌍둥이가 되어 모든 짝패가 똑같게 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짝패, 즉 타인들의 매력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희생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폭력적 만장일치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 만장일치가 자신이 만들어낸 신화 형태들의 배후로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다. 우리는 신화와 제의에서 부수적이고 쇠락한 별로 신통치도 않은 현상들만 보게된다. 집단적 폭력과 그리고 특히 단 하나의 희생양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단합은 사회 양상에 있어 그 연구가 사회학에 그다지 별 기여도 할 것 같지 않은 다소 병적인 탈선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신화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 세월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그 테마들의 특성, 현대 문화도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미 집단적 폭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폭력은 일단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결코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폭력에는 모방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희생위기 속에서는 그 대상이 아무리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욕망을 어떤 한정된 대상에 결부시키는 것을 피하면서 욕망을 폭력 그 자체 쪽으로 돌려야 한다. 모든 욕망들 속에는 대상과 주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3항, 즉 경쟁자가 있는데 이 경쟁자는 욕망주체와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 경쟁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과 대상과 주체의 우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경제 관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욕망의 우연한 일치의 산물은 아니다. 경쟁자가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주체는 그 대상을 욕망한다. 어떤 대상을 욕망함으로써 경쟁자는 욕망주체에게 그 대상은 욕망할 만한 것이란 것을 알려준다. 존재방식이니 관념이니 하는 피상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욕망의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는 욕망주체의 모델이다. 욕망은 본질

들의 바로 이런 상호호환성이다. 르네 지라르, 같은 책, p.238.

15) 차이소멸은 짝패의 일반화와 함께 폭력적 만장일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르네 지라르, 같은 책, p.123.

적으로 모방적이다. 그러므로 모델의 욕망을 흉내내어 그 모델과 똑같은 대상을 선택한다.¹⁶⁾

소포클레스의 두 번째 비극인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쫓겨난다. 오이디푸스(희생양)가 떠나면서 테베의 불화는 해결되고, 질서와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 앞선 모든 폭력들이 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수행한 것에 반해 희생양에 대한 폭력은 신비롭게도 모든 폭력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고가 그러한 상징적 사고는 폭력적 만장일치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데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종교)는 불가피하게 희생물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이 희생물이 자신의 파괴나 추방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의문을 품게 된다. 이로온 결과를 희생양의 덕택으로 돌리는 것은, 이 희생양에게 가하는 폭력이 질서와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수록 더욱더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이디푸스는 처음에는 해롭지만 나중에는 이로온 존재가 된다. 이렇듯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오이디푸스 신화의 중요한 테마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지라르는 프로이트가 리비도적인 충동에 집착함으로 인하여 모방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라르는 프로이트가 모방에서 잘못 도출된 개념 가운데에는 동일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동일화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동일화와 모방 욕망 사이에는 양자가 모두 모델을 선택한다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을 한 가족 밖으로 확대시킨다면 아들 쪽에서 보자면, 이 선택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부여된 자리, 즉 모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모든 남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프로이트의 사고 속에는 이미, 아버지와 동일화라는 미메시스(mimesis)와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의 충동이라는 대상에 근거하는 욕망이라는 자율성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들은 어머니로 향하는 자신의 길을 아버지가 막고 있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동일화는 적대적인 누앙스를 띠게 되며, 마침내는 어머니에 대해서조차도 아버지를 대신

16) 르네 지라르, 같은 책, pp.218-219.

하려는 욕망과 뒤섞이게 된다. 게다가 시초부터 이 동일화는 양면적이었다.¹⁷⁾

위의 인용글은 프로이트가 모방 욕망에서 결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에서, 프로이트는 동일화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조차도 아버지를 대신하려한다고 적고 있다. 지라르는 이 부분에서 프로이트가 은연중에 모방적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들(추종자)과 아버지(모델)가 동일한 욕망대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오이디푸스적 경쟁 관계는 존속하지만, 이것은 모델 선택 때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추종자는 <전혀 악의 없이> 자기 모델의 욕망대상을 향하며, 아무런 적의(適意) 없이 <어머니에 대해서조차> 아버지를 대신하기를 원한다. 아들은 모든 문화의 소리가 그리고 모델 자신이 그에게 전해 주는 모방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지라르는 모델에 대한 추종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모방적인 그의 생각에 의해 재해석된 소위 오이디푸스적인 경쟁 관계는 논리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한 이 콤플렉스의 결과들과 아주 유사하면서 동시에 아주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모방적 경쟁 관계의 결과는 결국 상호적 폭력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상호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보복이 불가능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유년기일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욕망은 아이의 관념일 수 없으며 그것은 분명히 어른의 관념, 즉 모델의 관념이다. 신화에서 보면 오이디푸스가 무엇이든 욕망할 수 있기 훨씬 이전에 신탁이 라이오스 왕에게 암시한 관념이다. 지라르는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관념이라고 말한다. 아들은 자신이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뒤늦게야 알게 된다.

프로이트주의의 신화적 요소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결정짓는 본질적 여건들에 대한 의식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프로이트는 신화적 요소, 그것은 바로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욕망에 대한 의식, 그것도 초기 동일화

17) 르네 지라르, 같은 책, pp.256-257.

의 암흑과 무의식적 암흑 사이에서 분명 돌출하게 생겨나는 의식,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의식이다. 이 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부득이 모든 논리와 그럴 듯함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 의식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진 흡입펌프와 배기펌프의 시스템과 무의식이라는 집합소를 생각하면서 이 의식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랬다. 친부살해와 근친상간 욕망, 예전에 이것을 진정으로 원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욕망을 억압한다.¹⁸⁾

3.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오이디푸스

“무의식 자체는 더 이상 구조적인 것도 인물에 관한 것도 아니요, 상징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으며 형상을 그려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기계로서 작동하며, 기계적이다. 그것은 상상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니며, 현실 자체요, <불가능한 현실> 또 그 생산이다.¹⁹⁾”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어린아이의 성욕은 발전 과정의 생물학적 실재에 관계지어지고, 오이디푸스는 환상의 심리학적 현실에 관계지어지고 있어서 오이디푸스가 생물학적 실재론을 위하여 없어질 뻔했다고 말한다.

욕망하는 기계들은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으르렁거리고 웅웅거리고 있다. 생산적 무의식에는 욕망하는 생산과 사회적 생산 사이에, 증후학적 형성물들

18) 르네 지라르, 같은 책, p.265.

19)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정신분석이 실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골몰하고 있는 맹렬한 오이디푸스화이다. 정신분석은 심상과 구조(욕망하는 기계들과 오이디푸스적 구조 사이에)가 결합된 수단을 가지고 이 일에 골몰하고 있다. 정신분열증화하는 것, 즉 무의식의 영역을 또 사회적·역사적 영역을 정신분열증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리하여 오이디푸스의 목을 조이는 쇠고리를 풀어 제치고 도처에서 욕망하는 생산들의 힘들을 다시 발견하고, 분석기계, 욕망 및 생산의 유대를 바로 현실에다가 다시 결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질 들뢰즈·펠렉스 가타리,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pp.85-86.

과 집단적 형성물들 사이에 직접적 대결이 있다. 이것들은 그 본성이 같으면서 체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기계가 욕망하는 기계들을 억압하고 있고, 이 억압이 억제와 관계하고 있는 점이다. 들뢰즈는 이것을 무의식의 모든 연쇄는 일대일로 대응시켜지고, 직선화되고, 전제 군주인 시니피앙에 매달린다고 말한다. 또, 모든 욕망하는 생산이 짓눌리고 표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표상 속의 표상하는 것과 표상되는 것의 음침한 놀이들에 굴복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욕망의 재생산이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치료의 과정에서도 단순한 표상에 자리를 내어주고, 생산적 무의식이 이제는 자기를 표현할 줄밖에 모르는 신화, 비극, 꿈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에 자리를 만들어 준다.

들뢰즈는, 프로이트에게 자기 분석에서 오이디푸스를 발견하고 있다는 의미를 진정한 자기 분석에서인가?, 아니면 그의 피테적 고전의 교양에서인가?²⁰⁾라고 반문하면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참된 자기, 즉 하나의 공장, 하나의 작업장이기를 그치고 하나의 극장, 즉 무대와 연출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여기서 정신분석가는 생산의 단위들을 조립하고 생산과 반생산의 집단적 동인들과 싸우는 기사나 기계 기술자가 되지 못하고 사적인 극장의 연출가가 되고 만다.

오이디푸스는 관념론에로의 전환점이다. 욕망하는 생산의 무(無)오이디푸스적 본성은 여전히 현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오이디푸스, 항(抗)오이디푸스, 준(準)오이디푸스적 등등²¹⁾으로 번역하는 오이디푸스의 좌표들에 포갠다.

20) 프로이트는 자기 분석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는 ‘그래, 이걸 오이디푸스를 닮았구나!’고 중얼거린다. 그런데 이 어떤 것을 그는 먼저 <가족 이야기>의 한 변형으로 본다. 즉 욕망이 바로 가족의 규정들을 폭파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편집병적 등록의 한 변형으로 본다. 이와 반대로, 가족의 이야기를 오이디푸스의 한갓 부속물로 삼는 일을 아주 조금씩만 해나간다. 또 무의식 속의 모든 것을 오이디푸스화하는 동시에 신경증화하는 일, 무의식 전체에다가 가족의 삼각형을 덮어씌우는 일도 조금씩만 해나간다. 정신분열자는 여기서 적(敵)이다. 욕망하는 생산은 인물화되고, 혹은 오히려 인물론화되고 상상화되고 구조화된다. 질 들뢰즈, 같은 책, p.88.

21) 정신 분석이 오이디푸스를 자기의 교의로 삼을 때, 정신분석은 어린이에게는 이른바 전(前)오이디푸스, 정신병자에게는 외(外)오이디푸스 다른 민족들에게는 항(抗)오이

최초의 환상이 모든 것을 오이디푸스의 무대에 포개놓을 때에는 벽 뒤나 무대 뒤가 이 환상이 욕망하는 기계들에게 양보하는 장소이다.²²⁾

정신분석은 신앙을 괄호 속에 넣어야만 즉 이데올로기적 형태로서의 오이디푸스를 유물론적으로 환원시켜야만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이디푸스가 하나의 그릇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것이 필연적으로 그릇된 어떤 것이요, 실제의 생산을 빗나가게 하고 질식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욕망을 오이디푸스에 관련시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의 생산적 성격을 무시한다. 우리는 욕망을 그 의식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막연한 꿈이나 상상이라고 단죄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언제나 고아였다. 즉 무의식은 자연과 인간, 세계와 자연의 일체화 속에서 스스로 출생하였다. 이제 아버지의 문제, 신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된다.²³⁾ 그런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살리거나 죽이거나 결국 마찬가지로 짓거리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무의식의 본성에 대하여 유일의 동일한 오해를 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묻는다. 네 것이나 내 것을 막론하고 욕망하는 기계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고장으로써 이 기계들의 사용의 일부로 삼는가? 어떻게 그것들은 기관없는 신체에 달라붙는가? 어떻게 그것들은 자기들의 체제를 사회적 기계들에 대결시키는가? 온순한 톱니바퀴에 주유를 하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지옥의 기계가 준비된다. 어떤 연결들, 어떤 이점들, 어떤 연결들이 여기에 있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지만, 생산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작동한다.²⁴⁾

디푸스의 관계들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질 들뢰즈, 같은 책, p.83.

22) 진료실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네 욕망하는 기계들을 입구에서 내버려라, 네 고아기계들과 독신기계들, 네 테이프 레코더와 네 작은 자전거를 버려라, 들어와서 너를 오이디푸스화하라,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생긴다.' 질 들뢰즈, 같은 책, p.89.

23) 아버지의 문제는 신의 문제와 같다. 그것은 추상의 산물로서, 인간과 자연의 유대, 인간과 세계의 유대가 끊겼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산출되는 것은 자연과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라고 생각한다. 질 들뢰즈, 같은 책, p.166.

24) 질 들뢰즈, 같은 책, p.172.

들뢰즈는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사회적 재생산의 지배적인 인자들을 구성하고 발전시키지 않고, 이 인자들을 자기 자신의 재생산 의식 속에 일치시키고 감싸는 것으로 바뀐다’고 말한다.²⁵⁾ 그리하여 아버지, 어머니, 아이는 자본의 심상들의 환연 자본씨, 토지부인, 그리고 이들의 아이 노동자로 변한다. 따라서 이 심상들은 이제 욕망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욕망은 이 심상들의 환영만을 공급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사회 터전의 집합이 적용되는 하부 집합이 된다. 사람마다 사적인 자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하부 집합은 각자에 대하여 사회적 인물들의 전체 집합을 위장하여 이것을 각자에게 배분하고, 이 사회적 인물들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이 인물들의 심상들을 흐리게 한다. 모든 것은 아버지-어머니-아이의 삼각형이 포개어지고, 이 삼각형은 사람들이 자본의 심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극할 때마다 <아빠-엄마>라고 부르면서 반향한다.

오이디푸스가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첫째 차원의 사회적 심상들이 둘째 차원의 가족적 심상들에 일치하는 데서이다. 가족은 우리들의 친밀한 식민지적 사회조직체요, 우리들은 모두 작은 식민지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바로 오이디푸스이다. 보호자, 족장, 사제, 경찰관, 세무관, 군인, 노동자, 모든 기계와 토지, 사회의 모든 사회적 심상들의 극한에는 아빠, 엄마, 나만이 있다. 즉 아빠가 물려받은 전제군주기호, 엄마가 인수한 잔여의 토지, 그리고 분할되고 절단되고 거세된 나만이 있다.²⁶⁾

결국 오이디푸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조작, 사실 쉽게 공식화할 수 있는

25)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하면, 가족은 이제 경제적 재생산의 자율적인 사회적 형태에 종속하고 이 사회적 형태가 할당하는 장소에 있게 되는 인간의 질료(質料), 즉 인간의 소재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즉 생산과 재생산의 요소들이 인간들 자신으로서 재생산되지 않고, 인간들에게서 단순한 소재를 얻는다. 질 들뢰즈·펠렉스 가타리, 같은 책, p.390.

26) “소위 정신분석의 대화라는 것에서 더 자유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이고 공식화할 수 있는 몇몇 본질에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 기반에 의존한다. 모든 것은 미리 형성되고, 정리되어 있다. 각자가 거기서 연표의 공동의 동인으로서, 생산과 재생산의 동인으로서 작용을 끼치고 작용을 받는 사회 터전은 오이디푸스에 포개진다.” —라캉—, 질 들뢰즈·펠렉스 가타리, 같은 책, p.393.

조작이다. 자본주의는 탈규준화하고 탈토지화한 흐름들을 통과시키고, 이것들을 사회적 생산 전체의 극한에서 욕망하는 생산이 되게하는 한에서 절대적 극한(외적 극한)이다. 자본주의는 정신분열증이 자기자신의 외적 극한임을 발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쫓아버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신 자기의 내재적 극한들을 생산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옮겨놓고 확대시킨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바로 절대적인 외적 극한을, 정신분열증적 극한을 중성화하거나 밀어내기 위해서, 구속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사회적 생산과 이 사회적 생산에서 이탈하는 욕망하는 생산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내재화한다. 오이디푸스는 이 옮겨놓아진 혹은 내재화된 극한이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옮겨놓아진 표상 내용이 그대로 욕망이 표상 표현이 된다. 오이디푸스는 근친상간의 물결을 타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탈규준화한 흐름들을 타고 도래한다. 결과적으로 들뢰즈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라이오스는 자연 집단의 대표자, 이오카스테는 토지 기계, 오이디푸스 자신은 전제 군주라는 관계를 성립시킨다.

들뢰즈는 “프로이트의 위대함은 욕망의 본질이나 본성을 더 이상 대상들, 목표들 및 심지어 원칙들에 관계시키지 않고, 추상적인 주관적 본질, 즉 리비도나 성욕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프로이트는 이 본질을 역시 사적인 인간의 최후의 토지인 가족에 다시 관계시키고 있다”고 말한다²⁷⁾ 그러면서 모든 것은 마치 프로이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성욕에 관한 자기의 심원한 발견을 변명하듯이 경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적어도 그것은 가족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들뢰즈는 또 이렇게 말한다.

“프로이트는 정신의학의 루터요,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이다. 그는 신화, 비극, 꿈의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욕망을 내면에서 다시 엮어낸다. 즉 내면의 극장을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오이디푸스는 욕망의 보편적인 것이요, 세계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어느 점까지 자기비판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계사가

27) 질 들뢰즈 · 펠렉스 가타리, 같은 책, p.400.

그 유연성, 그 특이성, 그 아이러니와 그 자신이 비판의 조건들을 채취하지 못한다면, 세계사는 하나의 신학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 조건들, 이 자기비판점은 무엇인가? 가족에 포개는 일 밑에 무의식의 사회적 공급들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 개인적 환상 밑에 집단의 환상들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 혹은, 결국 같은 것이지만, 환영이 심상의 심상이기를 그치는 점까지 환영을 밀어붙여, 환영이 숨기면서 포진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상들, 즉 분열들-흐름들을 찾아내는 것. 한갓 인물의 심상들의 두 차원에 지나지 않는 연표행위의 주체와 연표내용의 주체로 갈라진 거세된 사적 주체를 그들 나름대로 기계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되는 집단의 동인들로 바꾸어 놓는 것. 표상의 극장을 욕망하는 생산의 질서 속에 다시 옮겨놓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분열자-분석의 과제이다.

오이디푸스적 분석은 무의식의 모든 종합에다가 하나의 초월적 사용을 강요하여 이 종합들을 확실하게 변환시킨다. 따라서 정신분열자-분석의 실천적 과제는 이 변환을 역전시키는 일이다. 즉 무의식의 종합들을 내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탈오이디푸스화하는 것, 아버지-어머니의 거미줄을 없애버리는 것, 신앙들을 깨부수어 욕망하는 기계들의 생산에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공급들에 도달하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벽인 동시에 벽의 돌파요, 또 동시에 이 돌파의 실패이다. 이 벽의 밑을 파고 참을성 있게 구멍을 뚫어야 하는 긴 작업이다.

III. 나옴

두서가 없었지만, 대충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든다. 또한 논거 한 세 명의 사상가들의 광대한 저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오이디푸스에 관한 부분만을 비교하였기에 마치 숲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몇 그루의 나무만 보는 것처럼 편중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프로이트의 고정된 궤적을 벗어 던지고 문화적 상징에 더 연결고리를 두고 오이디푸스를 해석한 지라르와 자연에서 모든 생산 가능한 유기체들을 기관없는 신체와 욕망하는 생산으로 개념 설정하면서 오이디푸스는 끊임없이 생산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의 또 다른 하나일 뿐이라고 한 들뢰즈의 독해를 거울 들여다보듯이 살짝 훑어보았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의식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욕망에 억압을 받는다고 꼭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나는 지라르의 사상에 비교우위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엔 신경증, 편집증, 정신병이 존재한다(?). 또한 이런 것이 의식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식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유아기적 때부터 무의식에서 가져온 부조리가 아니라 어쩌면 모두 병적 증세는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증상들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론적 발전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나의 작은 생각이다.

참고 문헌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질 들뢰즈 · 펠렉스 가타리,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